

2014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과 정책과제 조사

弘報室 : (02)
6050-3602~5

* 이 자료는 **11/22(金)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1/21(木) 11:00부터**

※ 문의 : 거시경제팀 손영기 팀장(6050-3442), 민경현 대리(6050-3445)

“내년 中企 수출, 올해보다 5% 증가 예상”

- 대한상의 조사 ... 내년 수출 ‘올해와 비슷’(57%), ‘늘어날 것’(31%), ‘줄어들 것’(12%)
- 업종별 전망 : ‘음식료생활용품’(11%), ‘유화’(10%), ‘정보통신기기’(8%) 맑음 ... ‘반도체디스플레이’(-1.2%) 흐림
- 수출기업 애로 : ‘유가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50%), ‘해외 수출전문가 부족’(22%) 지적
- 정책과제 : ‘유가원자재가 안정’(43%), ‘수출금융 지원’(26%), ‘수출마케팅 지원’(23%) 필요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내년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수출 10% 증가 예상, 신흥국 경제불안 진정 영향”

전통주를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는 A사는 중국 경기둔화와 동남아 신흥국 경제불안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20% 감소했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동남아시아 경제불안이 진정되면서 전통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A사는 “중국과 신흥국 경제가 큰 변수가 되겠지만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품의 품질과 이미지 상승으로 수출 회복 예상”

미국과 유럽 바이어로부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수영복을 제조·수출하는 B사는 환율하락과 수출제품 단가하락으로 인해 올해 수출이 전년대비 20%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영복 품질이 잇따른 호평을 받고 있어 내년 수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 B사는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약 20% 증가해 2013년에 하락했던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수출 중소기업 672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내년 중소기업의 수출은 올해보다 5.0%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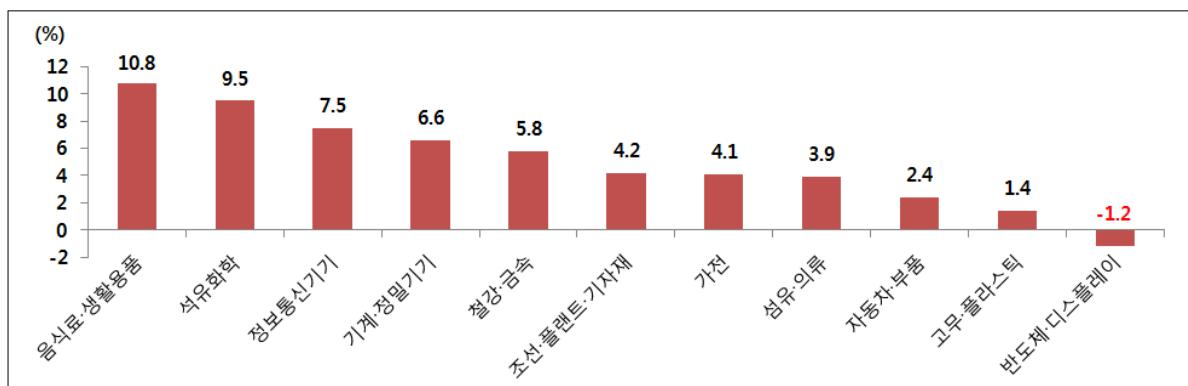
한편, 2014년 수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57.1%가 2013년 대비 비슷할 것, 31.1%가 늘어날 것, 11.8%가 줄어들 것으로 응답했다. 응답비율로도 올해대비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보다 약 3배 많아, 내년 수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상의는 “올해 중소기업은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수출시장 경쟁 심화, 엔저의 영향으로 수출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 경제 회복, 신흥국 경제 불안 진정, 관련 산업 호조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출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해 보니, ‘선진국 경기회복’(25.8%)을 가장 많이 꼽은데 이어 ‘관련 산업 호조에 따른 수요증가’(25.4%), ‘수출제품 품질·이미지 상승’(20.1%), ‘신흥국 경제불안 진정’(15.8%) 등을 차례로 꼽았다. <‘수출제품 원가절감’ 7.2%, 기타 19.6%, 복수응답>

업종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수출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품질 경쟁력 향상과 신흥시장 공략에 성공한 ‘음식료·생활용품’(10.8%)이 올해보다 두자릿수 이상 늘어날 전망됐고, ‘석유화학’(9.5%), ‘정보통신기기’(7.5%), ‘기계·정밀기기’(6.6%)도 수출 확대가 예상됐다.

<그림> 2014년 업종별 中企 수출전망



이밖에 올해 수요침체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과 수입규제 강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철강·금속’(5.8%)과 수주물량 확보가 어려웠던 ‘조선·플랜트·기자재’(4.2%)도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수출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올 전망이다.

반면, '반도체·디스플레이'(-1.2%)는 PC시장 축소와 휴대폰 메모리 단기하락, 중국공장 설비 완공으로 인한 디스플레이 공급확대의 영향으로 내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요 감소, 제품단가 하락으로 내년도 수출 어두울 것"

디스플레이를 미국·유럽으로 수출하는 C사는 유럽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시장수요가 감소하면서 올해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1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C사는 "내년 수출은 더욱 힘들 것 같다"며 "내년 중국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장이 완공되면 공급과잉으로 제품단가까지 떨어져 수출이 올해보다 10~20%가량 더 하락할 것으로 본다"며 한숨을 지었다.

한편,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 2~3년간 원유·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꼽은 기업이 많았다. 기업 애로 조사 결과 '유가·원자재가 등 비용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50.1%)', '해외마케팅 등 수출전문가 부족(21.6%)',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 강화(16.2%)', '수출 금융 지원 부족(12.5%)', '제품의 품질경쟁력 약화(11.8%)'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기타 3.4%, 복수응답>

중소기업이 꼽은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유가·원자재가 안정'(42.9%), '수출금융 지원 강화'(26.0%),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22.8%),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확대'(18.9%), '정부차원의 보호무역주의 대응'(11.6%)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 <기타 1.8%, 복수응답>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최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IT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이 선전하면서 지난 10월 수출은 사상 최고치인 505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경기가 내년부터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수출시장 경쟁심화, 유가·원자재가 상승 등 불안요인은 아직도 남아있다"며 "정부는 유가·원자재가격 안정, 수출금융지원 등 수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조사 개요 >

- ▷ 조사 기간 : 10/28(월)~11/8(금)
- ▷ 조사 대상 : 전국 중소 수출업체 672개사
- ▷ 조사 방법 : 전화 및 팩스